

## 짐 얼빈 전국제회장

짐 얼빈 전국제회장은 미국 조지아주 알바니 출신으로, 1999년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개최된 제 82 차 국제대회에서 국제라이온스협회의 국제회장으로 선출되었다.

1977년부터 알바니 라이온스클럽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클럽회장, 지대위원장, 지구총재, 복합지구 의장 등의 직책을 역임한 전회장은 1992-1994년도 국제이사 및 2000-2001년도 국제재단 이사장으로 활약했고, 현 시력우선 자문위원회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. 또한, 2019년에 3년 임기의 국제재단 이사로 임명되었다.

얼빈 전회장은 조지아 라이온스 라이트하우스 재단 및 조지아 라이온스 시각장애인 캠프의 재단이사 및 이사직을 역임했다.

국제협회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얼빈 전회장은 확장상, 가이딩 라이온상, 국제회장 감사장(2회), 국제회장상(16회) 및 협회가 수여하는 최고 영예상인 친선대사상을 포함하여 무수한 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, PMJF로서 기부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있다.

얼빈 전회장은 라이온스 활동 외에도 여러 기업, 전문 분야 및 친목단체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.

얼빈 전회장은 부인 Sharon Dillard 여사와 슬하에 4명의 자녀와 5명의 손주를 두고 있다.